

고통을 통해 구덩이로 내려가는 것을 막으시는 은혜의 하나님

성경말씀: 욥33:12-33

욥과 세 친구들의 세 차례 논쟁이 끝남(4-31장). 마지막으로 29-31장에서 욥은 자기의 과거, 현재를 비교한 뒤 맹세를 하고 나는 지금까지 투명하게 살았으니 하나님께서 한 번만이라도 변론에 응해 주시기를 구함. 바른 양심, 투명한 양심의 필요성

세 친구 침묵(32:1):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하나님께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도 침묵: 소리도 불도 비도 없고 아무것도 내려오지 않음. 세 친구가 틀렸다. 욥에게는, 창조물이 부른다고 내가 아무 때나 대답하겠느냐?(33:13) 일일이 해명 No!

젊은 사람 엘리후가 침묵을 깨고 등장함, 32-37장까지 6장에 걸쳐 하나님의 성품 진술

1.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33).
2. 옳으시다(34-35).
3. 위대하시다(36-37)

세 친구들처럼 비슷한 것을 말하는 대목도 있지만 의도가 다르다.

1. 그는 욥이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그의 견해가 옳지 못함을 보인다.
2. 고통에 대한 새로운 의미: a. 꼭 형벌이 아니라 죄를 짓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33:18, 24).
b. 좋은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36:1-15).

엘리후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33:6), 어느 면에서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

32-33장 강해, <고통을 통해 구덩이로 내려가는 것을 막으시는 은혜의 하나님>

엘리후의 등장(32)

엘리후는 오랫동안 참다가 등장함. 1. 나이가 어리다(4, 6-7), 예의를 지키는 사람

2. 전체를 듣고 말하려 하였다(11). 그들의 말에 주목함(12)

그가 말해야 하는 이유

1. 화를 냄(1-3, 5): a. 세 친구(3): 답도 모른 채 욥을 정죄함
b. 욥(2)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의롭다고 함
2. 영감을 받았다(8-10). 나이가 들면 지혜로워야 한다. 그런데 엘리후는 젊다.
그에게는 영감이 있다. Inspiration(8, 딤후3:16),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통찰력
그분의 영이 그의 영을 지도함(8). 그 결과 그는 지혜롭게 깨닫는 말을 함(8). 이것이 사람의 특징
위대한 자라고 지혜롭지는 않음(8), 하나님의 영감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의 말씀(딤후3:15-17)
그래서 그는 자기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여러 ck레 말함(32:10; 33:1, 31, 33 등)
3. 그는 공정하였다(14, 21-22). 욥이나 세 친구가 자기를 공격하지 않았으므로 편파적으로 할 이유가 없다. 또 그들의 말을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다.
4. 말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다(16-20). 오래 기다림, 말이 넘쳐 터지려고 함.
하나님의 말을 전해야만 할 필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 이런 상태가 되기를 원함

은혜로우신 하나님(33)

33장은 욥기에서 가장 멋있는 연설, 선한 자에게 닥치는 고통의 이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세 친구의 주장: 욥은 고통은 그의 죄에 대한 형벌이다. 변영신학

엘리후: 고통은 우리가 죄를 짓지 못하게 만드는 안전장치(18), 그 결과 구덩이에 빠지지 않는다(24).

먼저 1-7절에서 그는 자기의 말이 욥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보인다(3).

엘리후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 계시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라고 말한다(6).

다만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한다. 무섭게 하지 않겠다(7).

욥의 말을 인용함(8-11).

1. 욥은 죄가 없다고 하였다(9). 그런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욥은 거짓말하지 않았고 사악한 일을 하지 않았으며 의롭다고 하였지만 한 번도 죄가 없다고 하지 않았다. 다만 나는 순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다(2:3; 27:4-5). 사실 그는 완전함을 부인하였다(9:20). 다만 엘리후에게는 그의 말의 뉘앙스가 마치 그가 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느껴짐
2. 하나님은 불의하시고 욥을 원수처럼 대하신다고 욥이 말했다고 함(10-11). 이것은 사실이다

(13:24, 27; 16:9; 19:7, 11)

3. 그의 설명 논제(12-14) a. 하나님 사람보다 크시다(12, 교만하게 굴지 말라), b. 해명할 필요가 없다(13, 창1:1). c.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다(14).

4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세 가지 방법

a. 꿈과 환상(15-18), b. 고통(19-22), c. 중보하는 사자(23-33)

선한 사람에게 닥치는 고통의 의미

하나님은 욥 같이 선한 사람에게 알 수 없는 고통을 줌: 목적 교만을 누르고 순종하게 하는 것(17-18)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자는 구덩이에서 물러나지 않음(22), 거기로 들어감(24, 28)

14-33에는 구덩이(pit)라는 말이 4회(18, 24-28, 30), 구덩이는 진짜 구덩이,

영원한 상태와 관련해서는 원래 지옥을 뜻한다. 물론 여기서서는 사망, 파멸, 지옥(사14:15)

그런데 결국 중재자가 그를 건져냄(30), 그 목적(29-30)

14절의 의미: 한 번 두 번 말씀하신다.

1. 꿈과 환상(15-18):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가끔씩 사용하심, 지금은 아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그분에 대해 기록한 말씀을 통해 말씀하신다(히1:1-2).

욥도 이미 이런 것들을 체험하였다(7:13-14). 엘리바스도 이런 일 체험(4:12-21)

목적(16): 귀를 열기 위해, 교훈을 봉한다. 확실히 알려준다.

그런데 경고를 듣지 않으면 구덩이로 들어간다.

여하튼 이제는 꿈을 의지하면 안 된다. 이런 시대는 지났다.

경고를 듣지 않으면 드디어 고통이 닥친다. 아마도 욥에게 이미 이런 경고가 주어졌을 수도 있다.

2. 고통(19-22):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 속에서는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는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는 소리를 지르신다. 깨달으라고. 메가폰이다.”

엘리후는 식욕을 잃고 침상에 누운 사람 묘사(19-20), 뼈가 다 드러난 불쌍한 존재(아마도 욥 21-22)

그의 고통의 원인: 하나님, 정신 차리라고 주시는 경고

1. 모든 고통은 하나님 때문인가? 아니다. 자동차를 잘못 운전해서 사고를 내면 내 잘못, 잘 못 먹고 소화 불량, 운동 부족, 또 죄로 인한 고통

2. 모든 고통은 죄 때문인가? 아니다. 엘리후를 통한 말씀, 사도 바울의 고백(고후12:7-10)

3. 우리는 보통 고통의 제거를 위해 기도, 바울은 고통이 자기를 든든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게 함

3. 사람을 도와주는 중재 사역자의 필요(23-26)

말을 듣지 않고 구덩이로 거의 다 내려감. 이때 그에게 경고를 주는 사자가 있다(23).

많지 않다. 천 명 가운데 하나, 해석하는 자(말씀 해석, 상황 해석), 그와 함께하는 사자 바로 그 사람이 당사자 앞에 나타나서 선다. 그리고 곧바른 길을 보인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어라고 하시는가(24).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ransom(막10:45; 뎀전2:5).

이 사자는 누구일까? 예수 그리스도

욥이 그렇게 찾던 존재가 바로 이분, 사자, 중재인 해석자(욥9:33), 증인(16:19), 구속자(19:25)

그런데 이 사자의 시역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33:24)

대속물: 노예로 팔리면 반드시 누군가가 값을 치르고 구해야 한다. 구속자, 대속물

죄의 시장에 죄의 노예로 팔리면 명예, 재물, 영화, 지식, 학식으로 안 됨

사람이 할 수 없음. 누구나 다 죄인

오직 사람의 창조자인 하나님만 할 수 있음.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결과 순식간에 새 살을 입음(25), 그가 기도하면 즉시 들어주심(26)

그 일을 이루려면 회개가 필요하다(27-28). 하나님은 때때로 사람에게 이런 일을 행하신다(29-30).

고통의 의미, 안전 장치, 구속자께서 대속물을 주신다. 은혜로 영적 육적 구덩이에서 구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있는가?